



# 광야에 던져진 나



내가 또다시 광야에 던져졌다.  
아니 어쩌면 진즉부터 나는 황량한 이곳에  
서 있었는지도 모른다.  
살을 에는 추위가 늘처럼 깔린  
이 광야에 내가 의지할 곳은 어디인가.

수많은 시간이 스쳐 지나갔음에도  
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이곳에서  
무엇을 찾고 누구를 목놓아 불러야 할까.  
호랑이가 성년이 되면 숲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듯,  
나 또한 처음부터 혼자였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  
사치스럽고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.

바람 잘 날 없이 세상이 요동친다.  
참으로 못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이다.  
역사란 자신과 타인과의 투쟁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 
어쩔 수 없는가 보다.

하지만 눈 내리는 광야가 말한다.  
너무 낙심하지 마세요.  
뜨끈한 차 한 잔 기대할 수 있습니다.  
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죠.  
이제 당신이 있어 더욱 든든해집니다.